

평화와 생명

성서: 신명기 30장 15절 ~ 19절

15절: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의 축을, 행복과 번영을 너의 앞에 놓는다.

19절: 나는 오늘 화를과 대상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의 앞에 생명의 축을, 행복과 번영을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후손이 잘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저는 51학년의 이화동으로서는 현재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중한 Chapel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해 보려는 문제는 평화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의 성학들이 생명의 값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세계의 전체인 양을 리제가 평화와 생명 문제라고 하는데에 이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오늘날의 평화와 생명의 위기를 크게 받고 있기에 일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부터 들어서면서 인류는 이미 지구생태계 파괴로 지구의 수명 과 인류의 생존가능성 여부에 대해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특히 핵전쟁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의 상하원의 동시다발 테러에 의한 대참사 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아프리카는 무력행사 그리고 아프리카에 끼리 미치고 있는 잔재병으로 대참사는 생화학 테러의 확산으로 전세계는 평화와 생명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봤던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축을, 행복과 번영을 두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 법칙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우리는 어느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선택은 바로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세대로는 무엇을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마라는 질문은 여러면에서 답이 될수 있습니다. 자연생태계가 더이상 자연환경 없게된 사실이 밝혀졌을때로 볼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폭우홍수 등 함께 앞뒤 보살핌으로 자연 한계점까지 가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이면 현재는 이기적인 생활양식에서, 테러에 대한 엄청난 무력행사로써 이노이로 가는 강대국의 강제의 노리에서로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있음을 안수 있습니다.

생명이 전제된 평화는 성서에서로 태풍이 강요되고 있지만 영세한 생인 이래 인간이 풀의 공주적인 목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생명이란 결국로써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인간과 인간간에 그리고 자연과 인간간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태도 하나님과 창조질서 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부각된 이끄러짐, 기뻐함, 기뻐진것을 비로 보는 것입니다.

주요의견

* 원리지 리어

이름 2001-11-6
dugul

평화와 생명

성서: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

15절: 보아라, 나는 오늘 생명과 죽음, 행복과 불행을 너희 앞에 놓는다.

19절: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너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내놓는다. 너희나 너희 후손이 잘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저는 51학번의 이화동문으로서 현재 환경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귀중한 Chapel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생각해보려는 문제는 평화와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세계의 석학들의 생각과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오늘의 세계의 절실한 당면과제가 평화와 생명문제라고 하는 데에 이의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근거는 오늘처럼 평화와 생명의 위협을 크게 받은 적이 일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이미 지구생태계 파괴로 지구의 수명과 인류의 생존가능성 여부에 대해 묻지 않으면 안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미국의 최악의 동시다발 테러에 의한 대참사와 그에 따른 미국의 대아프카니스탄 무력행사 그리고 백악관에까지 미치고 있는 탄저병으로 대표되는 생화학테러의 확산으로 온 세계는 평화와 생명 위협에 떨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서 읽은 신명기 30장 15절과 19절에서 보면 하느님께서서는 우리 앞에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등 두 갈래길에서 우리가 선택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멈추어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그리고 그 선택은 바로 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현세대인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다 라는 징후는 여러 면에서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연생태계가 더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육구충족을 향해 앞뒤 보살핌도 외면한 채 죽음의 길로 질주하고 있는 우리들의 나만이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활양식에서, 테러에 대한 엄청난 무력행사로서 이는 이로 값는 강대국의 강자의 논리에서도 우리는 우리가 선택을 잘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전제된 평화는 성서에서도 되풀이 강조되고 있지만 역사가 생긴 이래 인간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생명이란 결론적으로 하느님과 인간간에, 인간과 인간간에 그리고 자연과 인간간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물이 정상상태 즉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다고 하는 것은 누적된 이즈러짐, 기울어짐, 깨어진 것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2000년을 모든 사람들이 같은 조건 밑에서 재출발하게 한다는 대화년으로 선포하고 세계질서의 이즈러짐, 기울어짐, 그리고 깨어진 것을 바로

한편으로
이제 생명
인간으로

평화
기회

잡아야 한다고 한 것은 바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더불어 사는 세상인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인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한 일에서도 그렇지만 이 땅위에 평화와 생명을 위한 일도 복잡하고 거창하게 보이지만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작은 배려와 행함으로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를 방문했던 <지뢰금지운동>을 한 공로로 '97년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조디 윌리엄스가 어떤 언론사와의 Interview에서 평화를 위해선 영웅보다 시민의 힘이 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신 아주 평범한 한 여성입니다.

오늘 이 아름다운 배움의 정당한 이화캠퍼스를 메우고 있는 2만여 재학생들 세계에 흩어져 각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13만 여의 이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화공동체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이화동산에서는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는 '결식아동을 돕기 위한 이화인 걷기대회'가 있었습니다. 나도 그 행렬에 끼여 걸으면서 이화동산의 변한 모습, 아름다운 자연과 후배들의 발랄한 숨결도 함께 만끽하며 많은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말로만이 아닌 실천으로 사랑운동, 생명운동, 나눔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화공동체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의 비명소리에 응답하는 이화인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산다고 하는 것은 나눔이라고 하는 사랑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화인이 이웃에 사는 48명의 배움아 하는 어린이들에게 나눔의 손길을 편 것은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분명 평화와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자라 큰 열매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돌아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운동이 이화동산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식양성위원회 등인이 도제하는 지구환경대리운제이기

저는 환경운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창조질서 회복에서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를 바로 잡는 일에 관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문제란 인간이 사는데 필요한 식품, 물, 공기를 제공해 주는 일과 인간활동에서 배출되는 다양한 폐기물을 정화해주는 자연생태계의 순환기능이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지나친 인간활동으로 지구생태계의 자원을 고갈시키고 정화능력을 마비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세계 인구가 도시에 몰려 살며 소모품을 대량 생산해서 대량소비하고 대량폐기 하는데서 환경문제는 비롯되는 것입니다.

1960년대에 농약의 해악성을 파헤친 Rachel Carson의 <침묵의 봄>과 1970년대의 움 글덤의 지구능력의 한계를 제시한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가 인류에게 충격을 안겨준 이래 이상기온으로 인한 천재와 체르노빌 원전사고 그리고 페르시아만 전쟁 등의 인재들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고 1970년대만 하더라도 뒷전에 밀려있던 환경문제가 현재는 국제정치 현안의 우선순위에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의 국가정상들이 자리를 함께 한 1972년의 스톡홀름의 인간과환경회의와 1992년의 리우에서의 환경과개발회의를 비롯해서 크고 작은 회의들이 빈번하게 개최되고, 문제개선을 위한 계획들이 세워지며 인류생존을 위한 지표들이 양산됨에도 불구하고 지구환경문제는 날

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책들에 대한 실천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데서입니다. 1997년도에 개최된 유엔환경특별총회의 평가에 의하면 환경문제의 근본문제인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비판의 표적이 대상은 자원다소비 국가들입니다. 자원다소비국가^란는 세계자원의 80%를 20%의 세계 인구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군에 속한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GNP가 7,500불 이상 된 '92년부터 자원다소비국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원낭비문제 개선의 어려움은 국가원수들의 합의에 의해 가능한 핵무기감축과는 달리 지구 시민 개개인의 결단과 생활실천으로만 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활인이 자기의 선 자리에서 작은 실천, 종이 한 장, 물 한 컵, 전기 한 등을 아끼는 자원절약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친환경적인 생활양식이란 첫째로 자기의 일상생활의 환경점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경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으로 에너지절약, 물절약, 쓰레기감량, 물건 재사용, 자원 재활용 등 소비억제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물건을 살 때는 제품에 사용된 자재와 원료의 채취과정, 제조과정, 유통과정, 사용후 폐기과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가, 오래 사용할 수 있는가,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폐기시에 재자원화가 가능한가 오염원이 아닌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의 생활수칙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로 생략하기로 하고 끝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하나의 환경운동체나 시민운동체에 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녹색생활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양식과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의 변화를 견인해 내는 데에는 조디 윌리엄스가 말한 바 있는 몇 사람의 영웅보다 결집된 시민의 힘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각해보십시오. 2만의 이화인이 하루에 물 한 컵씩을 절약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2만컵의 물을 아낀 것입니다. 종이 한 장을 절약했다고 합시다. 2만장의 종이가 절약된 것입니다. 댐건설의 반대나 벌목의 반대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생활실천이 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난 9월 중순 한,중,일 여성환경인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여성환경운동의 현황, 과제, 전망'에 대한 발표를 한 중국인 대표가 중국의 자유경제 체제에 따라 급속하게 변하고 있는 13억 중국인을 포함하는 세계 인구가 오늘의 소비욕구를 줄이지 않는 한 20개의 지구가 필요한데 20개의 지구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라면 우리의 소비욕구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한 바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에 죽음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한다지만 오늘 우리가 새삼스럽게 인간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등을 자문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업주의와 소비미덕의 사회의 결탁으로 더 빠른 것, 더 편리한 것, 더 좋은 것, 최고의 추구로 지구환경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1장 1-9절까지의 기술문명과 도

신문화에 대한 비판과 경고를 하고 있는 바벨탑이야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Context에서 평화와 생명을 위한 노력은 오늘의 역사의 추세를 겪는 것입니다.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평화와 생명에 대한 갈구의 적극적인 표현은 말로서가 아니라 바로 작은 실천, 작은 나눔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 이웃과의 따뜻한 관계, 자연과 더불어 사는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화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평화와 생명을 계승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며 산상설교의 축복이 우리와 같이 하기를 기원합니다.